

류현진 메이저리그 첫 홈런볼, 기념품 주고 맞교환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홈런을 기록한 가운데 평생 기념할 수 있는 그 홈런볼을 다저스 기념품과 맞교환한 사연이 알려져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 메이저리그 데뷔 첫 홈런볼을 들고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LA 다저스 류현진

류현진은 지난 9월 22일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전에서 0-1로 뒤진 5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상대 선발 안토니오 센자텔라와 맞섰다. 0볼-2스트라이크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시속 154km짜리 직구를 받아쳤고 타구는 우중간 담장을 살짝 넘어가는 동점포 홈런을 터뜨렸다. 비거리는 118.5m, 타구 발사속도는 시속 162.5km였다. 이 홈런은 류현진이 201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 통산 255타석, 210타수 만에 뽑아낸 첫 홈런포였다.

턱아웃은 축제 분위기였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선수들이 "베이브 류(Babe Ryu)" 를 외치며 흥분했다고 전했고 코디 벨린저는 "우리가 류현진보다 더 기뻐했다." 고 말했다.

'베이브 류' 는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와 류현진의 성을 각각 조합한 말이다.

류현진은 경기 후 "코디 벨린저의 방망이로 홈런을 쳤다." 고 밝혔다. 팀 동료인 벨린저는 올 시즌 46홈런을 수확, 내셔널리그 홈런 3위에 올라왔다. 이날도 그랜드슬램을 터뜨렸다.

데뷔 첫 홈런볼은 다행히 류현진에게 돌아왔다. 류현진이 홈런을 날린 뒤 다저스 구단이 홈런볼을 수거, 류현진에게 기념품을 전했다.

홈런볼을 잡은 팬이 경비 요원에게 순순히 건넸기에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기념품을 품에 안게 됐다. 팬에게는 대신 다저스 용품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에서 관중석으로 넘어간 파울이나 홈런볼의 소유권은 그 공을 잡은 사람이 가진다. 공을 잡은 사람이 주지 않으면 회수할 방법은 없다. 일부 팬은 자신이 소장하기도 하고, 역사적인 홈런볼이면 거액을 받고 판매를 하기도 한다.

다저스는 SNS를 통해 홈런볼을 쥐고 있는 류현진의 사진을 게재하며 그의 첫 홈런을 축하했다.

한국 축구, 도쿄올림픽 최종 예선 죽음의 조 편성

9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가 2020년 도쿄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죽음의 조에 편성됐다.

지난 26일 '뉴시스' 에 따르면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겸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조 추첨에서 이란, 중국, 우즈베키스탄과 C조에 편성됐다.

총 16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 걸린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은 3장이다. 개최국 일본은 자동 출전권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가 가진 출전권은 총 4장인 셈이다. 한국은 최소 3위 혹은 4위 이내에 들어야 도쿄에 갈 수 있다. 일본이 대회 4강에 오르지 못할 경우, 3위 안에 들어야 하고, 일본이 4강에 오른다면 4위 이내에 포함돼야 한다.

4팀씩 4개조로 나뉘어 각 조 1·2위팀이 8강 토너먼트에 올라 우승을 가리는 방식으로 열린다.

그런데 한국의 최종예선 상대들이 만만치 않다. 이란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23위로 AFC 가맹국 중 가장 높다. 중국, 우즈베키스탄은 각각 68위, 88위로 한국(37위)보다 아래에 있지만 연령대 대회에서는 변수가 많다. U-23 기준으로 이란과의 상대전적은 8전 5승1무2패다. 중국은 14전 10승4무1패, 우즈베키스탄은 10전 8승1무1패로 모두 한국이 압도한다.

한국 축구는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2016년 리우올림픽까지 8회 연속으로 본선 무대를 밟았다.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따낸 동메달이 최고 성적이다.

김학범 감독은 조 추첨 결과에 대해 "본선에 올라온 팀들은 모두 저마다의 강점이 있어 알볼 수 있는 상대는 없다." 며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해 우리의 것을 가다듬고 준비할 것이다." 고 전했다.

대회는 내년 1월8일부터 26일까지 태국에서 열린다.

벤투호, 월드컵 예선 위해 평양 찾는다

한국축구가 북한과의 월드컵 예선전을 위해 평양을 찾는다. 남측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을 위해 평양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 24일 "아시아축구연맹(AFC) 담당 부서와 북한축구협회 부회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미팅을 진행한 결과, 북한은 한국과 북한과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를 예정대로 평양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10월 15일 저녁 5시 30분,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29년 만에 남북축구대표팀이 만나게 된다. 하지만 축구 대표팀이 육로,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 평양으로 이동할 확률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분석된다. 지난 9월 5일 평양에서 0-2로 패한 레바논도 베이징에서 비자를 받고 항공편으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다.

KFA는 중국을 거쳐 가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 로 판단하고 대표급 선수들의 비자 발급에 집중하고 있다. 일찌감치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초청장을 받아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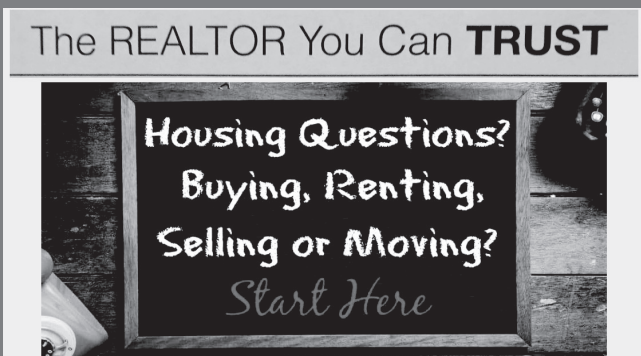
중국을 가려면 중국 비자가 필요하다. 또, 북한에 가려면 베이징의 북한대사관에서 북한 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KFA 관계자는 "평양에서 개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만 확인됐을 뿐 다른 사항들은 정리된 것이 없다." 고 전했다. 김일성 경기장에서의 태극기 게양, 애국가 연주, 응원단 구성 여부 등은 여전히 확실하게 정해진 바가 없다. 그러나 FIFA 주관 국제대회인만큼 태극기와 애국가는 다른 A매치와 동일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여자아시안컵 예선 참가했던 한국 여자대표팀 경기에서도 김일성경기장에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됐다. 김일성경기장에 태극기가 휘날린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교육, 학군 전문가로 대학입시 코디네이터로 일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꼭 알맞는 학군의 집을 찾아드립니다. 30일안에 매매를 성사시키는 전문팀을 갖춘 Listing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Looking for the Right Agent for the Job of Selling / Buying your Home?



Leah Ivy Chang
Realtor

DRE Lic: 02086695

미국교육전문가
입시코디네이터
College Consultant

949.501.8555

Fax: 714.367.1399

LeachangRealty@gmail.com

6056 Beach Blvd.
Buena Park, CA 90621